

최치원·허균·박제가...역사가 된 7인의 청춘 분투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소년, 어른이 되다

설흔 지음



야했다. 역사 인물 7인의 청춘을 모티브로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소년, 어른이 되다'는 그래서 의미 있는 책이다. 아무도 조망하지 않았던 청춘의 시기에 초점을 맞춰, 그들

다음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는 868년 공부를 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그의 나이 12세였다. 그렇다. 바로 최치원이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에 대한 기록은 이렇다.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정밀하고 민첩했으며 학문을 좋아했다." 결국 이 말은 그는 '문장으로 중화의 나라를 흔들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또 다음에 말하는 이는 누구일까? 그는 필생의 역작 '동국이상국집'이라는 문집을 펴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번번이 과거에 실패했다. 과거에 합격한 이후로는 동기들 중 가장 오래 살았으며 높은 관직에도 올랐다. 바로 이규보다.

최치원이나 이규보나 공통점이 있다. 청춘의 시절, 적잖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역사가 기억하는 그들은 당대 최고 학자, 문필가였지만 젊은 시절은 방황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암흑의 기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 또한 오늘의 젊은이들 못지않은 시련과 고뇌를 겪어

이 어떻게 어두웠던 시간을 헤쳐나갔는지를 들여다 보기 때문이다. '우리 고전 읽는 법', '추사에게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다'의 설흔이 저자로, 그동안 그는 역사 속 문장에서 모티브를 찾아 특유의 유려한 문체와 감성적 언어로 역사의 이면을 풀어왔다. 이번 책도 그 연장선이다.

언급한 대로 저자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와 학자들의 소년 시절을 소환한다. 문장가 최치원, 대문호 이규보, 성리학의 거두 이황, 최다 장원급제 율곡, 풍운아 허균, 규장각 검서관 박제가, '열하일기'의 박지원... 당대 내로라하는 문사와 학자들이다. 저자가 책을 쓴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어른이 된다는 건, 결국은 벽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옛날 소년들이라고, 근본부터 잘난 소년이었다고 믿고 싶어도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벽은 여전히 높고, 잘났다는 건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소년의 삶은 영웅담으로 바뀌기 마련이기에,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우리 앞에 선 소년들은



최치원을 비롯해 허균, 박제가, 박지원 등은 젊은 시절 저마다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 문장가가 되었다. 사진은 서기도.

에비 영웅 후보들이다!"

책에 등장하는 소년들은 하나같이 높은 벽에 직면했다. 퇴계 이황은 30대 초반까지 학자와 관리의 기로에서 갈등해야 했으며 16세 때 모친을 사별한 이어는 19세에 속세를 떠나 금강산에 입산한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젊은 시절 죽음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10대에 아버지를, 20대에 형과 누나를 잃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잇따른 죽음과 그에 따른 슬픔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지만 가혹한 운명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세상 이치에 대해 갖고 있던 허균의 생각을 뿌리째 뽑아버린 죽음이 또다시 이어졌다. 바로 아내와 아

들의 죽음이었다."

집안 형편이 몹시 가난했던 박제가가 서얼 출신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온전치 못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그는 더더욱 공부에 진력한다. 저자는 박제가의 삶을 한마디로 '고고(孤高)라고 평한다. 일반적인 고고는 세상일에 초연하여 고상한 것일 테지만, 박제에게 고고는 "혼탁한 세상에서 홀로 고상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였을 테다. 문장과 학문을 이루기까지 견뎌야 했을 그의 내적인 고통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반고와 사마천과 같은 글솜씨를 지녔다"고 평가

받았던 박지원은 극심한 강박증, 결벽증에 시달렸다. 명민한데다 모범적 지향이 강했던 그의 눈에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눈에 차지 않았을 터였다. 그는 세상과 불화했기 때문 '열하일기'라는 시대를 초월한 저서를 남겼다.

저자는 이처럼 역사 속 인물들의 청춘을 소환해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젊은 시절의 고통과 상실, 슬픔과 아픔을 펼쳐낸다. 그러면서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 벽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것은 오늘의 소년들, 오늘의 청춘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위즈덤하우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이 되기는 어렵다

아르카디 스트루가츠키의 지음, 이보석 옮김

20세기 러시아 SF의 개척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형제 작가가 있다. 아르카디 스트루가츠키와 보리스 스트루가츠키가 그들이다. 이들은 상징적이며 강렬한 작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러시아 SF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들 형제의 초기 작품 '신이 되기는 어렵다'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신의 딜레마를 모티브로 했다. 소설은 형제 작가의 미래 유토피아를 다룬 '정오 세계관'으로 분류되는 시리즈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주인공 안톤은 지구에서 외계 행성으로 파견된 시험역사연구소 정보원이다. 그의 임무는 행성 가운데 지구 역사의 중세 즈음에 해당하는 대륙의 아르카나르 왕국을 관찰하고 진보를 견인하는 데 있다. 그는 제국의 최강 검사이자 사랑의 결투꾼인 젊은 귀족 돈 무타타로 위장해 아르카나르 사회에 파고든다.

그곳에서 그는 '신의 눈'이라 명명되는 돌(송신기)이 박힌 무전기를 쓰고 모든 상황을 지구의 역사학자들에게 전송한다. 행성 전역에 파견된 정보원은 250명가량으로 막대한 힘과 아울러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안톤이 잠입한 아르카나르 왕국은 혼돈 상태다. 무능한 왕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즈음 돈 레바라는 장관이 왕을 업고 나라를 호령한다. 왕권에 위협이 되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타치는 대로 숙청하는 무자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안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하고, 이후 아르카나르 왕국은 어떻게 될까.

소설은 다양한 층위의 독서가 가능하다. 모험이 펼쳐지는 기사문학이나 정치철학 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문학·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이일야 지음

문화는 정말 존재할까? 보시는 자선인가? 수행인가? 일반인뿐 아니라 불교에 입문한 지 오래된 이들도 궁금한 부분이 적지 않다.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건 방대한 교리 때문만은 아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초기불교,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 등으로 변해왔다.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불교를 설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고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의 저자 이일야가 펴낸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는 불교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답으로 정리했다.

책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한 '이일야의 신해행중으로 본 백문백답' 원고를 엮은 것으로 100가지 질문은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문답들이다.

1장은 종교 영역에 초점을 뒀다. 저자는 종교는 검증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미타신앙, 미륵신앙, 관음신앙, 문수신앙 등을 다루며 어떤 신앙이든 각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

2장과 3장은 각각 '이해'와 '담음'에 포커스를 뒀다. 전자는 불교가 '삶의 철학이자 삶의 종교'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후자는 모든 행위를 수행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대상이나 경계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4장의 '깨우침'은 인간의 실존과 무관한 깨침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저자가 무엇보다 중점을 둔 부분은 "불교의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찰하는 것"으로, 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명제와 연계된다. <불광출판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앵거스 디턴의 지음, 이진원 옮김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히 국가 전체의 부가 커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국민의 건강 수준이 올라가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상승 곡선을 그리던 이 지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백인 중 45세에서 54세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진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과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인 앤 케이스는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를 통해 이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저자들은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중년 백인층의 사망률에 돌연 만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던 사망률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 죽지 않았을 백인의 수를 60만 명으로 추정한다. 2017년 사망자 추정치는 15만 8000명인데, 이 숫자는 매일 대형 여객기 세 대가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경우와 같다.

두 저자는 또 죽음의 원인을 자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에서 발견하고, '절망사(deaths of despair)'라고 이름 붙인다. 절망감, 박탈감, 소외감, 삶에 대한 의미 상실, 미래에 대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절망사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파헤친다.

아울러 불평등과 불공정부터 시작해 능력주의와 교육 격차, 경기침체와 실업, 공동체 붕괴와 가족 해체, 세계화와 산업 구조 재편, 독과점과 경쟁육락 등의 문제들을 통해 비극의 연원을 찾아간다. <한국경제신문·2만2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옥상 농원, 베란다 텃밭 도시농부가 자란다

- '나는 행복한 홈 파머' 늘어나는 식물 덕후들
- 도시농부의 감성 끌어올리는 책들
- 반려식물 돌보는 애플리케이션
- 이기자의 베란다 텃밭 도전기

美路味

완도는 숨결이 푸르다

- '고산의 노래' 보길도와 완도 수목원
- 다해산 모듬해초, 바로줄 전복치우더
- "여기 어디?" 전국에 일손난 난 '카페 달스윗'

클릭, 문화현장

인권·평화, 예술의 신선한 발언 '신안 예술섬'에서 열리는 뜻 깊은 전시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예능 대통령' 넘보는 '농구 대통령' 허재

예향 초대석

등단 55년 '달을 낚는' 작가 작가 한승원

"글 쓰는 한 살이었고, 사는 한 살 것"

문화 트렌드

첨단 기술을 만난 예술 더 창조적일 수 있을까?

문화 화제 - 핫플레이스 문경 '회수원'

200살 폐가 화려한 부활 8만 여 명 방문 '관광'이 되다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밀정'과 라벨의 '볼레로'

문화를 품은 건축물

거대한 미디어캔버스 형상화한 백남준아트센터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창력 가수들

문화 비어리스 퍼뜨리는 예술단체

브라스 앙상블 'Jolly Brass Sound'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②-대흥사

선향, 법향, 다향 깨달음의 천년가람